



## 복합문화예술공간 '유·스퀘어' 200% 즐기기!

광주광역시 최고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유·스퀘어'는 '당신(You)의 광장', '젊음(Youth)의 광장'이라는 뜻에 걸맞게 여행, 독서, 외식, 공연, 전시, 영화감상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하루 평균 6만~7만명의 시민과 여행객이 드나드는 유·스퀘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유·스퀘어 문화관 '뽀개기'

유·스퀘어 문화관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2009년 개관한 고품격 문화 허브다.

먼저 금호아트홀은 지역의 클래식 연주자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음악인의 연주회는 물론 세대별 맞춤 클래식 음악을 기획하며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을 초청해 연주회와 사인회를 열었고, 6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그의 동료 매슈 리프먼을 초청해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듀엣 연주를 선보였다.

동산아트홀은 연극, 뮤지컬, 국악,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7월에는 아동 참여극 '늑대 숲 또옹돼지 원정대'를 선보였고, 8월에는 블랙코미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다.

금호갤러리는 공예, 설치, 회화 등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곳곳의 다양한 즐길 거리

뜻밖의 버스킹을 만나는 것도 유·스퀘어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다. 버스커가 공연할 수 있도록 실내광장과 야외무대를 개편한

유·스퀘어는 공연자를 위해 전문가용 신시사이저, 앰프, 마이크 등을 무료로 빌려준다. 또 1층 대합실 내 두 대의 피아노는 연주를 원하면 누구든 무료로 건반을 두드릴 수 있다.

지역 예술가가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플리마켓 '아름다운 예술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선 작가의 개성이 담긴 비누, 팔찌, 엽서, 인테리어 소품 등을 살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터미널 대합실 쪽 2층 유·테라스에서 열린다.

### 맛집 투어

유·스퀘어 2층에 위치한 프리미엄 다이닝 스트리트 '라스 램블라스'에는 세계의 유명한 맛집이 한곳에 모여 있다. 돈돈, 후쿠오카 함바그, 유가네 닭갈비, 그릴타이, 도쿄스테이크, 아리가또 맘마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퓨전 요리뿐 아니라 아시아의 멋과 맛을 살린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유튜브 유스퀘어TV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 바로 유스퀘어TV다. 고객과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유·스퀘어는 미디어 담당자인 '나대리'와 '이사원'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먹방, 브이로그 등 일반적인 콘텐츠부터 전라도 사투리 뉴스, 유·스퀘어 부서별 직원 인터뷰 영상 등 유·스퀘어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까지 두루 만날 수 있다.

버스 이용객에게 제법 쓸만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니 유·스퀘어에 갈 일이 생기면 일단 '유스퀘어TV'를 한번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